

## 현미경(顯微鏡)과 조마경(照魔鏡)

— 이해조 소설에서 과학과 유교의 관계

이 학 영\*

### [초 록]

개화기에 발표된 이해조 소설 『구마검』, 『쌍옥적』, 『화세계』 등에는 주술적 세계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과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진리를 밝혀줄 수 있다는 믿음이 내장되어 있다. 자연을 탈주술화하는 과학, ‘악령’을 추방하는 빛으로서의 과학이라는 인식은 그가 편집을 맡았던 『기호흥학회월보』의 여러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해조는 당시 학회지 등을 통해 수용되고 있었던 서구 자연과학에 관한 글들을 통해서 기계적 우주론이나 진화론적 세계관을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소설에 드러난 진화론적 세계 인식이나 추리의 기법은 그러한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의 소설이 자연과학자가 그 대상을 연구 하듯이 목적인이나 형이상학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인간사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해조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받치고 있는 ‘천리’를 적극적으로 플롯의 동력으로 삼아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원리가 어떻게 세속에서 구현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이해조 소설에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이해조, 신소설, 과학, 유교, 하늘(天)

Yi Hae-jo, Sinsoseol, science, Confucianism, Heaven (天, 하늘)

성리학적인 ‘천(天)’의 개념에 기반을 둔 천인감응론적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상벌을 내리는 인격신의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과학’과 ‘유교’의 세계관이 혼재하고 충돌하고 있는 이해조의 소설은 서구의 자연과학, 특히 기계론과 진화론에 대한 유교적 지식인의 대응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1. 주술적 세계관의 해체와 ‘과학’의 표상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방식으로서의 과학은 흔히 상식과 편견, 미신과 신비주의에 대항하는 보루로 여겨진다. 엄격한 회의주의에 기반을 둔 과학을 그 누구보다 열렬히 지지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미신의 장막을 해체해가는 과학의 가치를 역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한다. “사람들은 간질을 신이 내린 벌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간질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신적이라고 부른다면, 신적인 것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sup>1)</sup> 서구의 근대 자연과학은, 이와 같이 자연을 인간의 지적인 이해가 닿을 수 없는 성스럽고 신비한 대상으로 보거나 정신(mind)이 충만한 지성적 유기체로 보는 관점<sup>2)</sup>에서 벗어남으로써 성립될 수 있

1) 칼 세이건(2001), 이상현 역,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김영사, p. 17.

2)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콜링우드는 그리스의 자연과학은 “자연 세계에는 정신(mind)이 충만하다”는 원리에 기초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이라는 대우주”와 “인간이라는 소우주”의 유비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자연관의 기초가 된 유비는 르네상스 이후에 “신의 작품인 자연”과 “사람의 작품인 기계”의 유비로 바뀌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는 “자연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자연 세계의 진행 과정”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인간 역사의 영고성쇠” 간의 유비로 바뀌었다. R. G. 콜링우드(2004), 유원기 역, 『자연이라는 개념』, 이제이북스, 2004, pp. 20-29.

었다. 실험과 수학적 추론의 방법은 근대 과학이 이러한 형이상학적 자연학이나 목적론적 세계관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근대 과학은 학문의 과업에서 목적인에 대한 탐구를 배제하고, 탐구의 대상인 자연을 철저하게 양적 관계로 환원하여 수량화하였으며, 그를 통해 얻어진 계산가능성의 토대 위에서 실험과 수학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구축한 일정한 법칙과 이론만을 자연에 대한 진리로 인정했던 것이다.<sup>3)</sup>

이른바 과학혁명 이후 서구의 과학은, 인간은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자신의 삶의 조건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베버가 이야기한 주지주의화 과정(Intellektualisierungsprozess), 혹은 세계의 탈주술화(Entzauberung der Welt)<sup>4)</sup>를 완성하는 것을 자신의 주요 사명으로 삼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해조의 소설에는 세계에 드리워진 마법적 장막을 걷어내는 탈주술화 작업에 한창인 과학에 시선을 던지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대목들을 살펴보자.

㉠ (상) 우리 절에서 자다가 도망히다는 사람도 둘이라는디 죽은 그 사람도 둘일 제는 그 사람들이 독갑이에게 흘려서 그 모양으로 미달너 죽엇슬가오.

(원) 에-이 못싱긴 놈 독갑이가 다 무엇이니. 우리 절에 와 묵으시는 안씨 시주님의 물리학 말삼하시는 것을 들어보지 못히니. 독갑이 불이라는 것은 아니 전기(電氣)의 조화로 그러하디 하시지 아니하더냐. 독갑이는 읊는 말이다마는 네 말 갖고 보면 이상시럽기는 혼 이다.<sup>5)</sup>

3) 정인경(2014), 『뉴턴의 무정한 세계-우리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과학사』, 돌베개, pp. 41-45.

4) 막스 베버(2002), 전성우 역, 『‘탈주술화’과정과 근대 : 학문, 종교, 정치』, 막스 베버 사상 선집 I, 나남출판, pp. 44-47.

㉮ (그 사람) 총각, 총각이 아마, 빅를 처음 트보앗지.

(총) 예 처음이올시다.

(그 사람) 응, 그런가보이, 그게 참말 집이 안인디, 그러케 뵈일 썬가 있느니,

(총) 참말 집이 안이면, 무엇이 그러케, 뵈임닛가.

(그 사람) 무엇이, 그러케 뵈느니, 즈세 알 수는 업지마는, 전히 오는 말이, 바다 속에 큰 조기가, 김을 닢 썬으면, 그 김이 집모양으로, 어리어 뵈인다고, 그 일흠을, 신루(蜃樓)라고 혼다느니, 물리학 아는 량반에게, 말을 대강 드르닛가, 물 우에 썬서 엉키여잇는, 증기에, 태양광선(太陽光線)의 작용으로, 오치가 령롱흔 이층삼층집과 같치, 뵈이는 것이라데, 누가 아나, 말이 그러닛가, 그런가하지.<sup>6)</sup>

㉮ 리시찰이 적어 신학문에 유의흔 터 같흐면 그런 소리를 듯터 락도 비 오는 리치를 풀어서

허허 무식흔 것들이라 할 수 업고. 비가 제 지닛다고 왓슬가 사람이 근 천명이 모혀 왓다갓다 흐는 바람에<sup>7)</sup> 먼지가 공중으로 올라가 슈증기를 락기흐야 비가 온 것이라

설명을 흐얏스런마는 이 눈섭만 썬도 썬이 나올 분네는 료량히기를 흥 어렵업는 것들이로구. 선초의 귀신이 비를 오게헛슬 터이면 더의들 정성에 비가 왓슬가 내가 와서 술을 부어놋코 글을 지엿스 죽 거긔 감동을 흐야 비를 오게 흐얏슬 터이지.<sup>8)</sup>

5) 이해조(1911), 『쌍옥적(雙玉笛)』, 보급서관, p. 79. 기존 연구에서 이해조의 작품으로 널리 인정된 경우(이해조, 최원식 책임편집(2004), 『작품연보』, 『홍도화(외)』, 범우 참조), 이 글의 주석에서 저자명은 발표 당시의 표기 대신 본명인 이해조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작품명을 묶는 기호는 필자가 직접 검토한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며 그 성격에 따라 단행본인 경우 ‘겹낫표(『』)’로 신문연재본인 경우 ‘낫표(『』)’로 처리한다. 작품명이 처음 언급될 때에는 그 작품이 최초로 발표된 매체의 이름과 발표 시기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인용문은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되,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편의상 현재의 맞춤법에 맞게 고쳐 썼음을 밝힌다.

6) 이해조(1912. 5. 5.), 『巢鶴嶺』4회, 『매일신보』, p. 4.

7) 이해조(1911. 6. 4.), 『花의血』, 52회, 『매일신보』, p. 1. 이 소설을 신문에 연재할 때에는 惜春子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쌍옥적(雙玉笛)』(『제국신문』, 1908. 12. 4.~1909. 2. 12.)에서 가져온 인용문 ㉔는 금강산 유점사의 한 상좌가 이른 새벽에 밧줄에 걸박된 채 나무에 죽은 듯이 매달려 있는 두 남자를 목격한 후에 그 절의 주지인 원각대사와 함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연유를 추리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도깨비에 홀린 탓이라는 상좌의 가설은 도깨비불이란 전기(電氣)에 의한 자연현상일 뿐이고, 도깨비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원각대사의 설명으로 기각되고 있다. 주지가 상좌에게 편잔을 주며 그의 가설을 가볍게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씨 시주님”, 즉 안광렬이라는 인물에게 “물리학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안광렬은 안사용이라는 관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금초라는 별호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외국 유학생을 역적으로 여기고 연좌제를 적용하던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품고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리에 지원을 하는, 개화사상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한 그가 도깨비의 존재 혹은 도깨비불 현상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을 유점사의 스님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밤에 들판이나 강둑, 숲에서 불빛이 명멸하는 현상인 도깨비불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유골에 포함된 인이나 인의 화합물이 자연 발화된다는 인화설(燐火說), 공기 중에 떠도는 인 가루들에 의해 인광현상이 발생한다는 인광설(燐光說), 곤충 발광설, 신기루와 같은 현상으로 보는 빛의 이상굴절설,<sup>9)</sup> 대기 중의 전기·전파의 이상으로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그에 의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플라즈마 발광설<sup>10)</sup> 등이 있다. 안광렬이 이야기한 “전기(電氣)의 조화”가 이 플라즈마 발광설을 의미하

8) 이해조(1911. 6. 6.), 『花의血』 53회, 『매일신보』, p. 1.

9) 『도깨비불』,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709&cid=40942&categoryId=31536>>, 2015. 2. 7.

10) 일본의 물리학자인 오오즈키 요시히코는 도깨비불이 벼락과 같은 대기의 전기현상이라고 보고 플라즈마에 의한 발광설을 지지하고, 인화설은 부정한다. 오오즈키 요시히코(1999), 김수연 편역, 『수업시간에 못다 한 신나는 과학 이야기』, 한울림, pp. 70-73.

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기 힘들다. 하지만 주지와 상좌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도깨비’·‘도깨비불’로 표상된 민담과 속신(俗信)적 개념들은 과학적 설명 방식에 의해서 급속히 무효화되고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sup>11)</sup>

「소학령(巢鶴嶺)」(『매일신보』, 1912. 5. 2.~7. 6.)의 일부인 인용문 ㉔는 부산에서 원산을 향해 달리는 배의 갑판에서 있던 홍씨 부인이 목격한 기이한 광경, 즉 바다 위에 갑자기 여러 층을 갖춘 오색영롱한 집이 보이더니 또 별안간 사라진 현상의 원인에 관해서 홍씨 부인 일행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홍씨 부인의 시동생인 총각에게 들려주는 장면이다. 그는 우선 “전혀 오는 말”에 의거해 그 집 모양은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조개가 내뿜은 김이 여러 만들어진 형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신루(蜃樓)”라고 불러왔음을 밝힌다.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은 물 위에 떠 있는 증기에 태양광선(太陽光線)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물리학 아는 량반”에게서 들은 설명을 전한다. 바다의 신기루가 대합이 뿜어낸 기운이라는 설명은 『사기』에서 천문현상과 인간의 역사를 연결한 「천관서(天官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2)</sup> 이것은 해시(海市)라든가 바다 위 거인의 도시(大人之市在海中)<sup>13)</sup>로 표현되고 있던 신

11) 도깨비나 도깨비불은 민담의 단골 소재다. 도깨비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에 따르면 ‘도깨비에게 홀리기’ 모티프가 사용된 민담에서는 도깨비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결말 자체도 인간이 고통을 당하거나 얼마 못살고 죽는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도깨비불 보기’는 바다에서 도깨비불이 나타난 곳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속신이 있는 해안지방에서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민담에 나타난다. 김종대(1994), 『한국의 도깨비연구』, 국학자료원, pp. 91-98.

12) “바닷가 대합이 토해 내는 기운은 누대처럼 보이고, 넓은 들판의 기운은 궁궐을 이룬 듯하다. (海旁蜃氣象樓臺, 廣野氣成宮闕然)” 사마천, 정법진 외 역주, 권27 「천관서」, 『사기』,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30>>, 2015. 2. 7.

13) 장수철 역(2005), 『산해경』, 현암사, p. 287.

기루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신화적 방식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은 사막에서 허상으로 오아시스가 보인다는가, 차가운 바다에서 배나 도시의 모양이 공중에 떠 보인다는가 하는 신기루는 모두 빛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생긴 굴절현상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해준다.<sup>14)</sup> 이 장면에서 이해조는 자연현상에 대한 재래의 신화적 설명 방식이 과학적 설명에 의해 상대화되고 점차 밀려나는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의 두 인용문에서 제시된 물리학적 설명은 발화하고 있는 인물이 제3의 인물에게 전해들은 것으로 간접화되어 있는 데 반해 『화의혈(花의血)』(『매일신보』, 1911. 4. 6.~6. 21.)의 일부분인 인용문 ㉔에서는 일종의 기우제 이후에 비가 온 까닭이 “신학문”에 의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가 서술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되고 있다. 먼저 지조 높기로 이름난 기생 선초가 이 시찰의 계약 빠져 정절을 잃고 원통하게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후 마을에 흑심한 가뭄이 들고 유행병이 창궐하자, 사람들은 선초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으로 비가 쏟아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 기이한 사건을 두고 무당과 판수들이 앞장서 만들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믿게 된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원통히 죽은 선초의 혼이 옥황상덕씨 호소하야 날도 감을게 하고 병도 단이게” 하였으나 제사를 지내 그 원혼을 위로하자 선초가 감동하여 당일내로 비를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자연적 해석에 대해서 “허탄 무거흔 말”이라고 일갈한 서술자는 무복(巫卜)들의 말을 이용해 제공을 내세우는 이 시찰의 뻔뻔함과 무지함을 꼬집기 위해서 “신학문”에 근거한 해석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것은 제사를 위해 모인 근 천 명의 사람들이 발생시킨 먼지가 공중으로 올라가 수증기를 매개하여 빗방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사 당일에 비가 내렸다는 해석이다. 먼지, 연기,

14) 반기성, 『아지랑이(Heat Shimmer)와 신기루(Mirage)』,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58499](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58499)>, 2015. 2. 7.

배기가스 등의 작은 입자들이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구름입자가 뭉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상학적 지식<sup>15)</sup>을 참조하면 이러한 해석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 유일하게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먼지를 내지 않을 때에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먼지를 발생시킨 사건과 그 날 비가 온 사건 사이에는 서로 아무런 인과적 관계가 없고 그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해석의 타당성보다 더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서술자가 자연에 대한 주술적 해석을 단호히 거부하고 “신학문”에 근거를 둔 기계론적 설명을 확신하는 태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조 소설의 한 층위에는 민담과 전설, 신화와 속신에 담겨 있는 주술적 세계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물리학’이나 ‘신학문’으로 지칭되는 과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진리를 밝혀줄 수 있다는 믿음이 내장되어 있다. 그러한 믿음은 이해조 소설에서 간단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리적 담화의 형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구원자 역할을 하는 과학자나 의사가 등장함으로써 구체화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자유종(自由鐘)』(1910)에서는 주술적 사고와 속신을 전파하는 책자들을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다. “혹 기도하면 아히를 낫는다 혹 산신이 강림하여 복을 준다 혹 면례를 잘하여 부귀를 얻는다 혹 불공하여 직익을 막는다 혹 돌구멍에서 룡마가 낫다 혹 신선이 학을 타고 논다 혹 최판관이 붓을 들고 안젓다 하는 제반 악징의 괴괴망칙한 말을 다 국문으로 기록하여 출판한 판칙도 만고 등출한 세척도 만아

15) 실제 인공강우 실험에서는 구름의 종류와 대기 상태에 따라서 요오드화은, 드라이아이스, 염화나트륨 등이 구름씨로 뿌려진다. 구름씨를 뿌리기 위해서 지상의 발전시설, 항공기나 로켓이 동원된다. 김정훈, 「인공강우」,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6869](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6869)>, 2015. 2. 7.



경향 각처에 불췌 췌여익이듯 업는 집이 업스니 그것도 오거서라 평칭을 보아도 못 다 보오”<sup>16)</sup> 길흥화복을 점쳐 인간 스스로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복을 부른다는 풍수, 관상, 사주 등의 여러 점술과 복술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개인이나 나라에 막대한 폐해를 미치는 원흉으로 지탄받는다. 『구마검(驅魔劍)』(『제국신문』, 1908. 4. 25.~7. 23.)에서는 금방울이라는 무당의 계략에 현혹되어 가산을 탕진해가는 함진해에게 그의 사촌 동생인 함일청은 장문의 편지를 보내 미혹을 경계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서양 사름의 실디를 발바 일절 귀신 등의 요괴흔 말을 한비에 쓰러바려 하늘도 가히 측량하며 바다도 가히 건너며 산도 가히 췌으며 만물도 가히 알며 ���스도 가히 지을 마음을 두시면 비단 형장의 한 ���만 부지흔실 췌 안이라 나라도 가히 강케 하며 동포도 가히 보존흔리이다.”<sup>17)</sup> 이해조는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힘이 하늘과 바다와 산을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며, 그와 동시에 배를 만들고, 철도를 놓고, 광산을 뚫는 등의 자연에 대한 기술적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과학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이해조의 소설에서 조력자나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고목화(枯木花)』(『제국신문』, 1907. 6. 5.~10. 4.)에서 정신을 잃고 자리에 누운 권 진사를 치료해주고 자신을 해한 자들을 용서하도록 인도한 의사인 조 박사<sup>18)</sup>, 『구 의산(九疑山)』(『매일신보』, 1911. 6. 22.~9. 28.)에서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떨어진 오복과 그의 종인 칠성을 구하고 일본에서 교육을

16) 이해조(1910), 『자유종(自由鐘)』, 광학서포, pp. 11-12.

17) 이해조(1908), 『구마검(驅魔劍)』, 대한서림, p. 110.

18) 『고목화』의 조박사라는 인물은 의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윤리 의식을 실천하는 기독교도로서의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다. 송민호 (2012),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105-109.

반도록 도와준 이학박사 등정수태랑(藤井壽太郎), 『우중행인(雨中行人)』(『매일신보』, 1913. 2. 25.~5. 11.)에서 기절한 백씨 부인을 치료해준, 총독부 의원 출신의 정기옥은 모두 주인공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소학령』에는 특이하게도 주인공 강한영이 추위를 막고자 걸어둔 헌 족자를 비싼 값에 치르고 사 가는 인물로 “서양 물리학사”가 등장한다. 그는 그 족자가 “애급 황제”를 그린 것으로서 만국박람회에 출품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긴다. 여기에서의 물리학자 역시 극도로 궁핍한 처지에 놓인 주인공에게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준 조력자이다.

이 ‘과학자들’은 조 박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극히 단편적인 모습만 비취질 뿐이지만 하나같이 선한 인물의 절처봉생(絶處逢生)을 가능케 하는 극적인 계기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물질세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 병든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나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문명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해조 소설에서 의사나 물리학자나 이학박사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병자에게 ‘인술(仁術)’을 베풀고 곤경에 빠진 자에게 ‘적선(積善)’하는 도학군자에 가까운 존재이다. ‘문명’의 화신이자 ‘전도사’인 이들의 형상을 만든 ‘주형’은 이해조가 지닌 ‘문명론’이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 사이의 상관성을 추구했던 유교의 도학적 전통과 목적인이나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자연을 바라보려 한 서구 자연과학의 기계론적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도학적 전통과 서구 자연과학의 관점을 조화시켜보려는 노력 속에서 바로 이 과학자-도학군자가 탄생한 것이다.

이해조가 당시에 이해한 서구 자연과학의 기계론적 관점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그가 기왕에 지녔던 유교의 도학적 전통과 어떠한 괴리나 충돌을 빚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긴장을 해소하려는 노력으

로서 그의 소설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

## 2. 기계론적 자연관의 수용과 추리 기법의 시도

자연을 탈주술화하는 과학, ‘악령’을 추방하는 빛으로서의 과학이라는 인식은 당시에 이해조가 홀로 지녔던 독특한 관점은 아니다. 그가 소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던 1900년대 후반부터 1910년대까지 신문과 잡지, 과학교과서 등에는 그러한 관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글들이 실리고 있었다. 예컨대 기독교계 신문인 『경향신문』에는 정기적으로 과학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화산과 지진, 벼락, 혜성 등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재이설(災異說)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원리를 일상의 용어로 설명하는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사들에서 재이설은 “화산과 디진에 연고는 룡(龍) 궂흔 귀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흐는 말이 뜻업는 소리”<sup>19)</sup>라거나 “벼락을 마져 죽음이 하늘의 별노 죽음이라 하니 이는 무식흔 사름의 암미흔 말”<sup>20)</sup>이라거나 “그 혜성이 보이면 무슨 변이 잇슬 줄노 아는지라. 이는 뜻업는 상각”<sup>21)</sup>이라는 말로 거부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현상의 원인에 대해 근대 과학이 탐구한 바를 일상의 용어로 설명하면서 “동양사름 들써 아니라 서양 사름들도 이전에는 그런 별을 보고 그 까둑을 아지 못흐는 고로 모든 사름들이 하늘이 무슨 변이 날 징조를 그르치는 줄노 알아 놀낫더니 학문가들의 발달이 넓어진 후로부터 그 혜성의 까둑과 보이는 리치를 분명히 아느니라.”라는 구절에서 잘 나타나듯이, 그러한 과학적 설명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주는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19) 「디진과 화산」, 『경향신문』, 1908. 5. 29.

20) 「벼락」, 『경향신문』, 1908. 10. 8.

21) 「혜성」, 『경향신문』, 1910. 2. 4.

신문에 실린 과학 기사들이 서구의 과학 지식을 평이한 일상의 용어로 의역하고 있었다면, 학회지와 과학교과서의 과학 담론은 과학의 분과 체계에 따라 분류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직역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마치 기계가 그러하듯, 그 구성요소들의 물질적 상호작용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체로 자연을 바라본다는 의미로서의 기계론적 자연관<sup>22)</sup>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해조가 내내 편집을 맡았던 『기호홍학회월보』(제1호(1908. 8.)~제12호(1909. 7.))에는 유병필(劉秉珽), 서병두(徐丙斗), 박정동(朴晶東), 민대식(閔大植), 김봉진(金鳳鎭), 원영의(元泳義)가 각각 생리학, 응용화학, 지문학(地文學), 광물학, 동물학, 식물학을 연재하고 있었다. 이해조가 연재한 「윤리학」(제5호~제12호)은 이 글들과 나란히 『學海集成』이라는 부분에 실려 있다. 당시 지식인들의 지적 맥락에서 마법적 우주론을 대신하여 기계적 우주론이 도입되고 받아들여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자세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그 변화 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한 대목만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物力轉換이라 함은 何也오. 物理學的으로 言하면 物力은 不減이라 訢는 原則으로브터 出訢 바이니 卽 宇宙間에 存在訢 各種 物力의 總量은 終始 一定不變訢야 寸毫만訢 力이라도 增加 或 減少訢을 不得訢고 唯一種의 力으로브터 他種의 力에 變換訢에 不過訢니 凡 物이 分解訢 際를 當訢야는 有機物質로 蓄積된 化學的 緊張力(實力)

- 22) 뉴턴은 기계론적 우주의 이미지를 완성한 과학자로 평가된다. 17세기에 형성된 낡은 과학적 사유양식에 비판적인 견해를 펼치던 철학자 에를 해리스는 뉴턴 패러다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의 프레임 ② 물질주의와 기계론 ③ 원자론 ④ 환원주의 ⑤ 모든 관계는 외적으로만(external) 존재한다는 가정 ⑥ 선입관이 없는 관찰과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 과학의 요구 ⑦ 목적론적 설명의 거부 ⑧ 물질과 정신의 완전한 분리. 여기에서 직접 언급된 ‘기계론’뿐만 아니라 나머지 항목들도 모두 기계론적 자연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E. 해리스(2009), 이현희 역, 『파멸의 묵시록: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 산지니.

이 變호야 活力, 動力을 成호 時에 溫熱을 發生호니 譬컨디 器機動作을 營호에 當호야 其 少量은 電氣力을 成호고 又는 光을 成호야 分解호 際에 遊離된 活力은 生活體로 호야금 其 作用을 遂호와 如호니라.<sup>23)</sup>

“물력전환(物力轉換)”과 “물력(物力)은 불멸(不滅)”이라는 표현으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존법칙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유기물의 화학적 에너지가 “활력(活力)”과 “동력(動力)”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기기(器機)”가 전기력과 빛을 발생하는 원리와 같다는 비유가 등장한다. 이 세상에는 근원이 없는 에너지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유기체인 인간의 몸에서 열과 힘(에너지)이 나오는 원리는 전기를 생산하고 빛을 내는 기계의 원리와 같다는 점이 표현되고 있다. 물질대사와 에너지보존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문을 연 『생리학』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마음에서 비롯된다(“万事를 皆發於心”)거나 뇌가 단지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기관(“腦爲 元神之府”)으로 보는 한의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뇌가 몸 전체의 주인(“腦爲全體之主”)이라는 관점에서 뇌와 神經(腦氣筋)의 작용과 기능을 설명해나간다. 그리하여 중풍이나 간질, 마비 등의 증세가 모두 신경과 뇌의 물리, 화학적 문제로 해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인간의 행위와 신체 현상에 관한 진리는 그 신체의 물질적 구성 요소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얻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생리학적 논의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자연에 대한 기계의 유비가 지닌 유효성을 입증하는 예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조는 인물의 병과 성격을 묘사할 때 재래의 표현을 생리학적 표현과 즐겨 대비했다. 예컨대 “권진스의 병은 스키락히에 고향지질[고황지질(膏肓之疾)의 오기; 인용자]이 안이라 다만 급히 놀남을 당호야 일신에

23) 유병필(1908. 8.), 『生理學의 定義 及 緒論』, 『기호홍학회월보』 1, pp. 33-34.

류통하는 혈분이 번적이 되어 신경에 순환이 잘 되지 못함으로 정신이 상실한 증세라”<sup>24)</sup>라든가 “구학문으로 말하면 오장육부에 정신보가 빠져 다 홀만하고 신학문으로 말하면 뇌에 피가 말나 신경이 히미히다 홀만홀 정갈이”<sup>25)</sup> 등의 구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묘사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기계론의 관점에서 조망된 자연과 세상 전체는 개개 인간의 사정과 선악을 불문한 채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거침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무차별적이고 무심한 자연과 세상이 인물들을 둘러싸고 위협한다. 이해조 소설에서 ‘천시(天時)의 대사(代謝)’(『화세계』, 『홍도화』)나 ‘공변된 광음’(『비파성』), ‘천하대세’(『화세계』)와 ‘풍조(風潮)’(『화세계』, 『모란병』) 등은 자연과 세상의 그 무심한 얼굴을 지시하는 서로 다른 명칭들이다. 여기에서 ‘하늘(天)’은 인간 행위의 도덕성이라든가 가치 개념과 무관한 독자적 원리나 이치에 의해 작동할 뿐이다. 이처럼 도덕적 목적론이 배제된 ‘하늘’은 이해조 소설에서 흔히 진화론적 세계 인식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텃시의, 변천하는 것이어니와, 그 천시에, 싱장하는 사람의, 일도, 부지불각 중에, 오날 달으고, 래일 달으게, 변천하느니, 그 변천함을 깨닫고, 시그를 싸라, 처사하는 자는 지각이 매오, 잇다 홀 것이오, 변천함을, 몰오고, 넷 것, 도흔줄 알아, 썩자루 쥐고 잇듯, 하는 자는 감각성(感覺性) 업는 토목이나, 일반이라 홀너라”<sup>26)</sup>라는 대목이나 “풍조가 털로 달녀 오듯 어제가 옛날이 되야가니 적이 소견이 잇는 사름이고 보면 토목갓치 우도커니 잇다가 속절업시 흥인종 흑인종과 일반으로 소멸하지 안이홀 터인디”<sup>27)</sup>라는 대목에서는 진화론적 관념을 유교의 순환론적 역사관<sup>28)</sup>

24) 이해조(1912), 『고목화(枯木花)』, 동양서원, p. 116.

25) 이해조(1908), 『빈상설(鬢上雪)』, 광학서포, p. 57.

26) 이해조(1911), 『홍도화(紅桃花)』하편, 동양서원, p. 2.

27) 이해조(1911), 『모란병(牡丹屏)』, 박문서관, p. 110.

28) 순환론적 역사관은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1년 동안의 계절의 변화, 또는

에 의거해서 이해하고자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천하대세’나 ‘풍조’가 이해조 소설에서의 자연, 좀더 정확하게는 ‘하늘(天)’이 지닌 얼굴의 전부는 아니다. 『화세계(花世界)』(『매일신보』, 1910. 10. 12.~1911. 1. 17.)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자.

하느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샤 아모리 적은 바라도 통촉지 못흐 시는 일이 업서 착흔 자를 복주고 악흔자를 죄양 주심이 일호의 착이 업스나 천하대세에 이르러는 청탁 후박을 가리시지 안이호고 풍조(風潮)를 말 달니듯 몰아보너시는 바람에 인정과 스업이 날과 시로 변흐야진다.<sup>29)</sup>

여기에서 ‘하느님’으로 신격화된 자연은 한편으로는 세상에 무차별적으로 풍조(風潮)를 몰아 보내 천하대세를 만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선화음(福善禍淫), 즉 선악(善惡)을 분별하고 상벌(賞罰)을 내리는 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는 존재이다. 이 후자의 면모가 이해조 소설의 하늘(天), 혹은 자연이 지닌 두 번째 얼굴이다. 여기에서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며 “하늘은 인간의 여러 가지 행위에 상응하는 반응을 나타낸다”는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상<sup>30)</sup>이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하늘(天)은 인간 세상을 감찰하고 인간의 행실에 대한 보응을 주재하는 인격신(人格神)인 ‘하느님’이나 ‘상제(上帝)’를 상징하

---

태어나(生)·자라서(長)·늙어(老)·죽는(死) 생물의 생명과정에서 보이는 주기적 패턴을 모델로 하여 자연사나 인류사를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소강절(邵康節)은 상수학(象數學)에 근거하여 순환론적 역사관을 정식화하였는데, 그가 펼친 원회운세설(元會運世說)에 의하면 우주역사의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1원(元)은 12만 9천 6백년에 해당한다. 주자(朱子)는 소강절의 도식을 이어받아 기(氣)의 생성과 소멸의 주기적 과정으로 우주진화론을 재구성하였다. 야마다 케이지(1991),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pp. 184-193.

29) 이해조(1910.10.22.), 『화세계(花世界)』, 『매일신보』, p. 1.

30) 풍우(2008), 김갑수 역, 『동양의 자연과 인간 이해-중국의 천인관계론』, 논형, p. 54.

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격이 강한 초기 유학의 신인감응론(神人感應論)과 통하고 있으며, 보응의 정확성에 ‘일호차착(一毫差錯)’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감응이 필연적 이치임을 암시한 부분에서는 ‘천즉리(天卽理)’로 집약되는 리학(理學)의 천인감응론과 통하고 있다.<sup>31)</sup>

이처럼 이해조는 인간과 자연, 혹은 세상에 대한 유교적 이해를 기반으로 서구 자연과학 지식을 받아들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조가 소설을 활발히 연재하던 시기에 각종 학회지와 신문 매체를 통해 서구 자연과학 지식이 활발히 담론화되었는데 거기에 담긴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해조가 지니고 있었던 유교적 세계관에 커다란 충격을 주며 균열을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서구 문명이 만들어낸 자연과학 사상은 유교적 세계관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해조는 이러한 균열에 대응하기 위해 유교의 사상적 틀을 새로운 ‘문명’의 요구에 맞추어 재정비하고 그 틀 내에서 서구의 자연 과학 사상과 유교적 사상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유교의 재맥락화라고 할 수 있을 이해조의 그러한 문학적 시도 가운데 하나는 ‘천(天)’이나 ‘천리(天理)’ 개념을 적극적으로 신비화, 인격신화함으로써 ‘물리(物理)’의 의미를 상대화하고, 도덕의 확고부동한 근거를 정립하려 한 것이다. 일종의 패턴으로서의 ‘리(理)’는 사실성과 규범성이라는 양쪽 영역 모두에 걸쳐 있는 개념으로서 애초에 주자의 인간학과 윤리학은 바로 이러한 ‘리(理)’의 양의성 위에서 구축되었다.<sup>32)</sup> 이해조는

31) 신인감응론(神人感應論)에 대해서는 풍우(2008), pp. 55-61, 리학(理學)의 천인감응론에 대해서는 풍우(2008), pp. 82-90 참조.

32) 주자학에서 ‘리(理)’가 패턴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해명될 수 있다고 본 사람은 아마 다 케이지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패턴으로서의 ‘리(理)’는 크게 네 가지의 개념상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무생물과 식물에 있어서는 존재의 패턴, 작용의 패턴을 의미하며, 동물에 있어서는 행동의 패턴, 인간에 있어서는 행동의 규범적 패턴을 의미한다. 결국 그는 ‘리(理)’ 개념은 질서, 의미, 가치, 가치이념이라는 의미론적 계층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아마다 케이지(1991), pp. 367-372.



이처럼 가치개념을 존재개념과 이어주고 있는 ‘리(理)’ 개념을 기반으로 삼라만상의 조화와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이치를 발현하는 ‘하늘(天)’ · ‘천리(天理)’의 표상을 만들어내었다. 그리하여 이해조의 소설에서 도덕적 차원은 작중인물들의 운명을 엮어내고 사건들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정은 이해조 소설의 정탐 서사에서 죄상의 규명과 그를 위한 추리에 도덕적 차원이 지속적으로 개입되는 독특한 양상을 부여한다. 우선 이해조의 추리 소설에 대한 관심이 서구 자연 과학의 기계론적 관점이나 추론의 합리성에 대한 관심과 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해조는 『쌍옥적』과 『현미경(顯微鏡)』(『대한민보』, 1909. 6. 15.~7. 11.) 등의 ‘정탐 소설’을 썼고, 범죄서사를 담은 많은 장편에서 추리 기법을 활용했으며, 에밀 가보리오(Émile Gaboriau)의 『르루즈 사건(L’Affaire Lerouge)』을 『누구의 죄』(보급서관, 1913)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추리소설의 원조(元祖)로 불리는 포우가 극히 적고 간접적인 단서만을 가지고 오직 성찰의 힘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나 인간의 행위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포우의 소설은 “인간의 행위는 물리적인 현상처럼 법칙들을 따르기에 예측될 수가 있으며, 그러기에 그것은 ‘추론될’ 수 있”<sup>33)</sup>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해조의 소설에 나타난 추리 기법 역시 그와 유사한 믿음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고) 본티 어서 보아 알아갠습닛가. 인천 룡동서 술 먹더란 말삼을 당신게 듯고 그 즈들의 술 질기는 것을 짐작헐겠고 종々 이 근처에서 맞났다하시니 그 자들의 거쥬가 멀니 잇지 아니헐 것을 알겠기로 그췌 청구헐던 스천량 돈으로 이 술청을 빅포헐고 외양과 키디가 당신 이야기 헐던 사람과 방블헐게 되면 안으로 불너들여 쥬안을 돈보

33) 토마 나르스작(2003), 김종현 역,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p. 22.

지 아니하고 먹도록 더접으며 저의끼리 슈작하는 양을 유심이 들었더니 천만 의외에 하로는 그 두 사람이 앓가 모양으로 들어와 술을 먹으며 권하는디 금초라 한은이라 서로 불으기에 (이하 생략)<sup>34)</sup>

이 인용문은 『쌍옥적』의 여정탐인 고소사가 돈이 든 가방을 훔쳐간 용의자들인 금초와 한은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그녀는 정순금에게 들었던 용의자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토대로 추론한 결과 그 용의자들이 어떤 장소에 반드시 술을 마시러 나타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범인들의 행동은 마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면밀하게 측정되고 그 궤도가 예측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측정되고 예측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고소사의 추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금초와 한은은 돈가방을 훔쳐간 범인이 아니었고, 고소사는 진짜 범인들에 의해 살해를 당한다. 이처럼 이해조 소설에서 범인의 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합리적 추론이나 추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정탐자의 지적인 추론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피해자나 정탐자의 도덕적 판단력과 그에 감응한 ‘천리(天理)’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가령 『구의산(九疑山)』(『매일신보』, 1911. 6. 22.~ 9. 28.)에서 애중이 이동집의 죄상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인, 잘린 머리가 담긴 보통이를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의 발로라 할만한 행위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그녀는 뒤뜰에서 거미줄에 걸려 요동하는 나비를 발견하고 “에그 더것보게 불상도 험라. 사름이나 미물이나 죄 업시 원통히 죽는 일이 괴막히지 안은가”<sup>35)</sup> 하는 생각으로 나비를 구해준다. 여기에서 애중은 혼인한 날 밤에 괴한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당했다고 여겨진 남편을 떠올리며 나비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

34) 이해조(1911), 『쌍옥적(雙玉笛)』, pp. 35-36.

35) 이해조(1912), 『구의산(九疑山)』上, 신구서림, p. 85.

것을 날려보내준 것이다. 그러므로 애중의 행위는 남편에 대한 인애(仁愛)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비를 다시 날려보내자 까치가 달려들어 주둥이로 그것을 채가게 되고, 문제의 보통이가 숨겨진 고목나무 위에 앉은 그 까치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비를 놓치면서까지 자지러지게 쫓는 바람에 애중은 의혹을 품게 되고, 이동집의 죄상을 알아내게 된다.<sup>36)</sup>

은밀하게 숨겨진 죄상을 낱알이 밝혀내는 이야기로서의 이해조 소설에서 진상(真相)은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인물의 도심(道心)에 의해서 지각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진실은 ‘현미경(顯微鏡)’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마경(照魔鏡)’<sup>37)</sup>에 의해서 현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36) 이해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박쥐우산』(『조선일보』, 1920. 7. 14.~9. 5.)은 그가 앞서 번역한 바 있는 『누구의 죄』와 유사한 스토리 구조와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박쥐우산』의 작자가 이해조로 추정됨을 밝힌 논의로는 배정상(2015), 『‘정탐소설’ 『박쥐우산』의 작자 문제』,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이 있다). 그렇지만 『누구의 죄』와 달리 정탐자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우연성’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이 복선화음의 이치로 설명되고 있음을 다음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다. “그 비밀하고 그 암막힌 살육 죄인을 정탐하노라고 그 허다한 신고를 격고 그 골몰한 정신을 허비하면서도 달포 동안을 아모 효과가 업다가 주괴들 정성쇼도로 그릇된지 하늘의 복선화음하시느 리치로 그릇된지 의외에 량씨모당과 창기 금강을 만나 죄인의 전후정절을 여흠부절을 일호착오 업는 영로를 발견 하얏스니 악전고투하다가 승전고나 올닌듯이 상쾌도 하고 시원도 하여” 이해조 (1920. 9. 4.), 『박쥐우산』, 『조선일보』, p. 4.

37) 마귀의 본성이 비추어 보이는 신통한 거울인 ‘조마경(照魔鏡)’은 세상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 내지는 도덕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해조가 편집을 담당했던 잡지인 『기호흥학회월보』에 실린 『學界의 照魔鏡』에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을 배반한 행위를 ‘조마경’에 비친 마귀(魔鬼)로 비유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비의(非義)”의 권세를 탐하는 행위, “비리(非理)”의 재물을 탐하는 행위, “비분(非分)”의 명예를 탐하는 행위가 각각 “두역신”, “아귀악신”, “망량귀”로 비유되고 있다. 윤상현(1909. 5.), 『學界의 照魔鏡』, 『기호흥학회월보』 10, pp. 2-3.

### 3. 유교적 진리의 추구하고 플롯으로서의 ‘천리(天理)’

이해조의 소설에서 추리 기법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대부분의 소설들은 독자를 탐정과 동일한 지평에 세워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적인 모험으로 초대하는 소설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경우에 악인의 범죄 행위는 독자들에게 미리 보여지거나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며-그(녀)들의 범죄가 지닌 멸륜패상(滅倫敗常)적 성질과 그 계략의 교묘함에 흥미성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범죄의 진실이 폭로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탐정의 지적 성찰보다는 은인을 만난다든가 하는 우연적 요소인 경우가 많다.

이해조 소설의 악인들은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혹은 가정 내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얻기 위해 가장을 미신에 미혹케 하고, 본부인이든, 적자나 적녀이든, 데릴사위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면 가리지 않고 모함하여 멀리 쫓아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죽이려한다. 요부와 악당,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멸륜패상적인 악행은 가산을 탕진케 하고 가도를 무너뜨리며 국세를 기울게 한다.

이 악인들이 행하는 가장 흔한 범죄의 수법은 흥와조산(興訛造誣)으로 무고한 자에게 가화(嫁禍)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 믿음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온갖 술객들이 암약하며, 위조한 편지, 통정한 사내로 연출된 행위, 심지어 유산한 태아로 위장된 쥐 등 현란한 거짓 증거들이 동원된다. 그래서 이해조의 범죄서사의 결말에서는 죄상(罪狀)의 발명(發明)과 누명의 탕척(蕩滌)이 동시에 일어난다.

사람들이 거짓 증거들과 참소(讒訴)에 쉽게 속고, 죄상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것은 주술적 세계관을 버리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욕망으로 인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거울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스름의 모습은 거울과 일반이라 만물을 디훔이 크고 적고 정하고 추한 것이 일호도 차차업시 모다 빗췌는 것이언마는 거적자리에 한 번 췌러진 이후로 각종 물욕이 동산에 풀과 긱치 닷호아 싹이 나와 밝은 낮을 가리오니 눈압에 당흔 태산과 밍호를 능히 슸히지 못흠은 아모라도 먼키 어려오나 오죽 성인군즈와 효즈렬녀의 탁이흔 뵈품을 가진자는 그와 긱치 안이하야 형용이 가미 그림즈가 싸르듯 믱스에 처음을 보고 그 나중을 료량흔는 법이라 (이하 생략)<sup>38)</sup>

이 대우주(大宇宙)를 비추는 소우주(小宇宙)로서의 마음이라는 관념은 ‘천인합일(天人合一)’과 같은 유교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마음이 거울처럼 삼라만상을 정확히 비추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의 외양이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지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성(性)’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완벽하게 발현하여 ‘천리(天理)’나 ‘도리(道理)’를 지각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기에 기질이 나 욕망에 의해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진 범인(凡人)은 미치지 못하는 지각의 수준에 성인군자만은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의 구절이 이어지고 있다. 마음의 구조를 이와 같이 파악한 이해조는 “인욕을 제거하고(去人欲)”, “천리를 보존해야(存天理)”한다는 정주 리학과 유사한 금욕주의적 주장<sup>39)</sup>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덕을 자연화하고 자연을 도덕화한 유학의 사고 체계에서 자연, 혹은 천(天)은 단순히 물질적 개념이 아니다.<sup>40)</sup> 이해조 역시 천리(天理)의 개념을 단지 서구의 자연과학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원리로 좁혀서 이해하지 않았으며, 영통하고 정의로운 주재자로서의 ‘천(天)’의 면모를 거의 모든 작품에 새겨놓았다. 이해조는 천리가 뜻하는 바 자연의 이치와 하

38) 이해조(1911), 『화세계(花世界)』, 동양서원, p. 26.

39) 풍우(2008), pp. 260-264.

40) 윤사순(1998), 『유학의 자연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늘의 바른 도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살려쓰고자 했다. 오히려 목적론적 해석을 배제한 작용인의 철저한 탐구를 수행하는 자연과학에 대해, 이해조는 주재자로서의 천 개념을 적극적으로 인격화하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천(天) 개념을 창조했는지도 모른다.<sup>41)</sup>

소소헌신 상테는 옴히지 못히시는 바이 업시심으로 창선 징악호 시기를 호말도 착오됨이 업시사 갑록명록으로 호야곰 제반 고향의 악보를 받게하고 라씨부인과 빅남형데로 호여곰 의외의 도움을 얻어 복록을 향슈케 호섯도다.<sup>42)</sup>

사람에 능력으로 변동치 못하고 귀신의 지조로 추측지 못할 것은 선악보응이라 미양 턴만 뜻밖에 일이 싱기여 만구일담으로 죽으라던 스름이 살아도 나고 부귀복록을 턴만 년 누릴 듯 호던 스름이 꾀벌을 당키도 호며 못 맛날 스름이 맛나기도 호며 업슬 스름이 잇기도 호고 잇슬 스름이 업기도 호야 천티만상이 듯고 보기에 두렵기도 호고 우습기도 호고 지미도 잇고 섬섭도 혼디 그 열러 가지 경우를 차례로 손가락을 씹아 헤여보면 모다 선현 즈는 복을 받고 악호 즈는 벌을 밧난 일 췌이어늘 (이하 생략)<sup>43)</sup>

이 구절들이 잘 보여주듯이 이해조는 창선징악(彰善懲惡)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재하는 ‘상제(上帝)’의 존재, 혹은 사람의 능력으로 미리 헤아릴 수는 없으나 항상 실현되고 있는 선악보응(善惡報應)의 원리 자

41) 유교에서 ‘천’의 기본 성격은 지각활동이 있다는 ‘영명(靈明)’한 능력, 인간이나 만물을 생성한다는 ‘조화(造化)’의 작용, 인간과 만물을 지배한다는 ‘주재’(主宰)의 역할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이해조는 『서경』에 나온 “‘천도’는 선행에 복을 내리고 문란함에 재앙을 내린다(天道福善禍淫)”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아 ‘주재자’로서의 ‘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금장태(2009), 『귀신과 제사-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pp. 20-27.

42) 이해조(연도 미상), 작자 후기, 『만월臺(滿月臺)』, 출판사 미상, p. 87.

43) 이해조(1913), 『비파성(琵琶聲)』, 신구서림, p. 136.

체를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두었다. 이해조 소설에서 사건 전개와 주요 계기에서 종종 드러나는 우연성은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작위적 구성의 결과이거나 필진성 있는 서사를 구성하지 못하는 작가적 역량 한계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 선악지보(善惡之報)의 원리가 내재적으로 실현되는 한 방식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다. 『비파성』의 주인공인 영록과 연희는 절벽에서 굴러떨어져도 죽지 않으며 그들이 떨어지는 곳에 마침 배가 놓여 있다. 내포 작가의 수준에서 보면 천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절벽으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온갖 흥계를 꾸미고 악행을 일삼는 황공삼은 김의관을 죽이고, 도피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를 엄격하지만 우연히 연희와 영록을 만나게 되어 결국 죄상이 탄로나고 만다. 여기에서 우연성은 천도의 한 실현 방식이자 그 증좌이다. 이와 같이 이해조는 천리(天理)·천도(天道)로서의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원리를 플롯의 차원에서 구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 4. ‘현미경’을 든 군자, ‘조마경’을 든 과학자의 행로

이해조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받치고 있는 하늘의 이치(天理·天道)를 받아들여 플롯의 동력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그것이 피안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초월적 원리가 아니라 세속에서 작동하는 현실적 원리로 파악했다.

사람마다 말하기를 착한 자는 극락세계로 가고 악한 자는 디옥으로 간다 하니 극락세계가 하늘 위에 있고 디옥이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스님은 초년 고성을 격다가 늦게 복을 누리 가업시 질기는 것을 극락세계라 홀만하고 악한 사람은 당장에 엄격한 필지언정 종년 감옥서나 경무청에 드러가 고초 격는 것을 디옥이라 홀만흔지라.44)

기독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빈상설』의 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조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선악보응의 원리가 세속적으로 구현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소설에서 죄상을 소소히 꿰뚫어보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을 맡은 인물들은 천(天)을 내면화하고, 천도를 실현하는 인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조는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 참소하는 악인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마음은 욕망에 의해 흐려질 수 있음을 반복하여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죄상을 밝혀주는 ‘정대(正大)한’ 관찰자를 창조하고 있다. 이해조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열녀와 의인(義人), 군자에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죄상을 밝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로서 그들은 더 이상 주술적 세계관을 믿지 않고 인간 행위의 도덕성은 마치 자연 법칙처럼 필연적으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 이를테면 그들은 ‘현미경’을 든 도학군자 혹은 ‘조마경’을 든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해조의 문학 속에서 ‘현미경’과 ‘조마경’의 역능 사이에, ‘도학군자’와 ‘물리학자’의 이미지 사이에 상호적으로 삼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복합적인 표상은 일제의 식민화라는 현실과 마주하면서 점차 식민지의 사법 권력 속에서 안착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해조는 주재자로서의 천(天) 개념을 적극적으로 인격화하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인격신의 개념을 창조하였다. 죄상을 살피 선악을 분별하며, 그에 따라 화복을 내리는 주재자로서의 신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선화음(福善禍淫)의 리(理), 혹은 그 주재자로서의 인격신은 식민지의 경찰과 사법 권력을 매개자로 삼아 기능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로 인해 “종처”로 표현되는 식민지의 타자를 배제하는 논리를 내포함으로써 식민 담론에 포섭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만다.

44) 이해조(1908), 『빈상설(鬢上雪)』, p. 112.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이해조(1920. 7. 14~9. 5.), 『박쥐우산』, 『조선일보』.  
 \_\_\_\_\_(1913), 『비파성(琵琶聲)』, 신구서림.  
 \_\_\_\_\_(1912. 5. 2~7. 6.), 『소학령(巢鶴嶺)』, 『매일신보』.  
 \_\_\_\_\_(1912), 『구의산(九疑山)』, 신구서림.  
 \_\_\_\_\_(1912), 『고목화(枯木花)』, 동양서원.  
 \_\_\_\_\_(1911. 4. 6~6. 21.), 『화의혈(花의血)』, 『매일신보』.  
 \_\_\_\_\_(1911), 『화세계(花世界)』, 동양서원.  
 \_\_\_\_\_(1911), 『모란병(牡丹屏)』, 박문서관.  
 \_\_\_\_\_(1911), 『쌍옥적(雙玉笛)』, 보급서관.  
 \_\_\_\_\_(1911), 『홍도화(紅桃花)』 하편, 동양서원.  
 \_\_\_\_\_(1910. 10. 12~1911. 1. 17.), 『화세계(花世界)』, 『매일신보』.  
 \_\_\_\_\_(1910), 『자유종(自由鐘)』, 광학서포.  
 \_\_\_\_\_(1910), 『구마검(驅魔劍)』, 대한서림.  
 \_\_\_\_\_(1909. 6. 15~7. 11.), 『현미경(顯微鏡)』, 『대한민보』.  
 \_\_\_\_\_(1908), 『빈상설(鬢上雪)』, 광학서포.  
 \_\_\_\_\_(연도 미상), 『만월대(滿月臺)』, 출판사 미상.

### 【국내 논저】

- 금장태(2009), 『귀신과 제사-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김중대(1994), 『한국의 도깨비연구』, 국학자료원.  
 송민호(2012),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막스 베버(2002), 전성우 역, 『‘탈주술화’과정과 근대 : 학문, 종교, 정치』, 막스 베버 사상 선집 I, 나남출판.  
 배정상(2015),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R. G. 콜링우드(2004), 유원기 역, 『자연이라는 개념』, 이제이북스.  
 야마다 케이지(1991), 김석근 역,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예롤 E. 해리스(2009), 이현휘 역, 『파멸의 묵시록-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 산지니.

오오즈키 요시히코(1999), 김수연 편역, 『수업시간에 못다 한 신나는 과학 이야기』, 한울림.

유병필(1908. 8.), 『生理學의 定義 及 緒論』, 『기호홍학회월보』 1.

윤사순(1998), 『유학의 자연철학』,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윤상현(1909. 5.), 『學界의 照魔鏡』, 『기호홍학회월보』 10.

이해조(2004), 최원식 편, 『홍도화(외)』, 범우.

장수철 역(2005), 『산해경』, 현암사.

정인경(2014), 『뉴턴의 무정한 세계-우리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과학사』, 돌베개.

칼 세이건(2001), 이상현 역,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김영사.

토마 나르스작(2003), 김중현 역,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풍우(2008), 김갑수 역, 『동양의 자연과 인간 이해-중국의 천인관계론』, 논형.

#### 【기타 자료】

김정훈, 『인공강우』,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6869](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6869)>.

『도깨비불』,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709&cid=40942&categoryId=31536>>.

반기성, 『아지랑이(Heat Shimmer)와 신기루(Mirage)』,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58499](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58499)>.

사마천, 정범진 외 역주, 권27 『천관서』, 『사기』,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30>>.

『디진과 화산』(1908.5.29.), 『경향신문』.

『벼락』(1908.10.8.), 『경향신문』.

『혜성』(1910.2.4.), 『경향신문』.

원고 접수일: 2017년 1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월 24일

계재 확정일: 2017년 2월 2일

Abstract

---

The Microscope and the Magic Mirror  
—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Confucianism  
in the Yi Hae-jo's Novels

Lee, Hak-young\*

The notion that the magical world view is no longer valid, and the belief that science can reveal the truth about human beings and the world is built into the novels of Yi Hae-jo, such as *Gumageom* (驅魔劍), *Ssangogjeog* (雙玉笛), *Hwasegye* (花世界). The recognition of science as a means of escaping from the magical world, and of science as a light for expelling 'evil spirits' can also be seen in various articles of the *Journal of Gihoeunghaghoe-wolbo* (畿湖興學會月報), which he edited. It seems that he had encountered a mechanical cosmology or an evolutionary worldview through articles about Western natural science that were accepted through academic journals. The evolutionary worldview or the techniques of the detective story revealed in his novels shows such an influence. However, his novels do not look at huma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a natural scientist, as he studies the object but without a 'final cause' or metaphysics. Rather, Yi Hae-jo repeatedly showed how the principle of 'the rewarding of virtue and the punishment of evil' is realized

---

\* ABD, Department of Koer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ecular world, using the “rule of heaven” (天理) (which supported the view of the neo-Confucian worldview) actively as the power of the plot in his novels. In the novels of Yi Hae-jo, the theory of response between heaven and man based on the neo-Confucian notion of “heaven” (天) is revealed clearly, and the concept of nature (god) which makes moral judgments and punishes frequently appears. The novels of Yi Hae-jo, in which the worldviews of science and Confucianism are mixed, have significance as a response of Confucian intellectuals to Western natural science.